

2024년 5월 에콰도르 소식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부터 에콰도르는 큰 사건 사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약 조직과 사법부의 부정한 거래가 발각되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이에 반발하는 갱단이 생방송중인 방송국을 점령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암살하는 등 전국에서 테러를 일으키어 시민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어 군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강력범죄가 80% 정도 줄어 들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몸값을 노리는 납치 사건도 증가하고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 외부 활동이 위축됩니다. 에콰도르의 치안과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적색신호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승합차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저희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아내만 타고 있었고 크게 다치지 않는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도 저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받고 차량 수리도 저희 보험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3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차량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일주일정도는 너무 화가 났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 앉히고 크게 다치지 않음에 감사하니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네요. 예상치 못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수리가 잘 마쳐지고 수리된 차량에도 아무 문제가 없길 기도합니다.

작년말에 에콰도르에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전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지역별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일상생활에 꽤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부족한 전기를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로부터 구입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4월부터 다시 가뭄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단전정책이 시행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현재 가뭄으로 전력량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에너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전력 부족 상태를 숨겨왔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약 2주간 비가 계속 와야 부족한 댐 수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염려되었는데 결국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네요. 무더위에 하루에 4~6시간 정도 정전이 되다 보니 일상의 리듬이 깨어

지게 됩니다. 적당한 강수량이 필요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에는 기아대책에서 개최하는 제3회 호프컵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축구팀을 인솔해서 3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선교지 중 10개의 센터를 선정해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큰 행사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2020년에 참가하기로 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동들에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아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빈이가 또 한번의 심혈관 관련 시술을 잘 받고 왔습니다. 작년에 병원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서 올해로 연기되었던 시술인데 하필이면 의료대란 이슈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두번의 시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의료 이슈로 인해 한번으로 시술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의 시술만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좁아져 있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혈관상태가 괜찮아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고 시술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빈이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에콰도르에 왔을 때만 해도 치안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출되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약 이권을 둘러싼 카르텔들의 영역 싸움으로 인한 강력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코비드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보호비를 뜯어 내는 갱단들까지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어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네요. 최근에는 전력난까지 겹치다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거나 다가와 안아주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곤 하네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미소는 아닐까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거나 낙심치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사역모습>





어린이 예배



반별 성경공부



영화관람



호프컵 아동 부모 모임



여권발급



축구연습

